



KOCHAM ECONOMIC REPORT

제 2013-25 호

2013년 4월 8일(월)

□ 미국 경제 동향

- 1) 중국국부펀드, 미국의 불공정 투자 장벽 지적
- 2) 미국 실업률, 구직자 구직 포기로 인해 하락
- 3) 연준(FRB), QE 축소시기 놓고 갈등 증폭

□ 해외 경제 동향

- 1) 북한의 ‘준전시 위협 사태’에 대한 미국 반응
- 2) 호주, 위안화-호주달러의 직거래 승인
- 3) 라가르드 IMF 총재, 일본은행 양적완화 옹호 발언

□ 산업·시장 동향

- 1) 글로벌 천연가스시장, 경쟁 가속화
- 2) 전자화폐 비트코인, 가치 확산으로 사이버 금융거품 우려

□ 미국 경제 동향

1) 중국국부펀드, 미국의 불공정 투자 장벽 지적

- 지난 4월7일(현지시간) 월스트리트 저널은 중국 국부펀드인 중국투자공사(CIC) 가오시칭 사장이 공개적으로 미국의 불공정 투자 장벽을 지적했다고 보도
 - 가오시칭 사장은 이날 중국 하이난성 보아오에서 개막한 보아오포럼에서 미국 금융위기당시 환영받았던 중국 국부펀드가 미국에서 환영받고 있지 못하다고 주장
- 한편 수치상으로는 중국의 대미 투자 규모는 최근 오히려 큰 폭으로 증가
 - 지난 2012년 1-9월중 대미 기업 및 투자 프로젝트에 63억 달러를 투자, 이는 지난 2010년 연간 사상 최대치인 58억달러를 상회하는 결과
 - 또한 최근 미정부는 중국 국영 석유회사인 해양석유총공사(CNOOC)가 캐나다 에너지업체 넥센을 인수하는 것을 승인한바 있음
- WSJ는 중국 정부와 기업들이 정작 문제 삼고 있는 것은 일부산업에 대한 미국의 투자 장벽이라고 지적
 - 최근 미 의회는 중국의 광범위한 해킹 의혹에 따라 중국이 소유·운영·지원하는 회사가 개발한 정보기술 제품에 대해 연방정부 예산을 쓰지 못하도록 규정한바 있음

2) 미국 실업률, 구직자 구직 포기로 인해 하락

- 지난 4월5일(현지시간) 월스트리트저널(WSJ)은 지난 2월중 실업률 하락은 일자리 증가에 따른 결과가 아닌 대량의 구직자들이 대거 일자리 찾기를 포기한 데 따른 것이라고 지적
 - 지난 2월중 실업자와 취업자 수를 합한 노동인구는 49만6천 명 감소, 근로가능인구 대비 노동인구 비율인 노동인구참여율은 63.3%로 지난 1979년 5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한바 있음
- 전문가들은 노동력 인구 감소 이유로 실업자들의 실망감으로 인한 구직 포기과 인구 고령화에 따른 퇴직자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

3) 연준(FRB), QE 축소시기 놓고 갈등 증폭

- 지난 4월8일(현지시간) 미 주요언론들은 연준(FRB)이 지난 3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(FOMC)회의 이후 양적완화(QE) 축소시기를 놓고 내부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고 지적
 - 월가 전문가들 역시 연내 채권매입 축소가 시작될 것이라는 조기 축소와 최소 연말까지는 현 매입규모를 유지할 것이라는 쪽으로 크게 엇갈리고 있는 상태
- 특히 최근 연준(FRB) 이사, 지역연방은행 총재들이 공개석상에서 잇따라 통화정책에 대한 견해를 밝힘

축소 주장	<p>존 윌리엄스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(4/3) LA소재 기업인 모임에서 고용시장 전망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올 여름부터 매월 850억 달러에 달하는 FRB의 채권매입 규모를 줄여 나가야 한다고 주장</p> <p>제임스 블라드 세인트 루이스 연은 총재(4/3) 블룸버그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경제상황 변화에 따라 매월 채권매입규모 중 100억~150억 달러 정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</p>
유지 주장	<p>대니얼 타블로 연준(FRB)이사(4/3) CNBC출연,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신규 인력보다 일자리가 더 많이 창출되는 상태가 지속돼야 한다며, 양적완화 조기 축소에 신중한 입장을 표명</p> <p>데니스 록하트 애틀란타 연은 총재(4/2) 올 연말 또는 내년 초 양적완화 규모 축소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진단, 미국 경제가 추세적으로 살아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몇 달간 긍정적인 지표가 연속돼야 한다고 주장</p>

- 이러한 연준(FRB) 내부의 논란은 미국 경제 지표들이 주택시장의 회복 등에 힘입어 최근 지속적인 개선 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, 노동시장이 다시 후퇴하는 양상을 보임에 따라 증폭되고 있음
 - 결국 연준(FRB)의 자산매입 축소 시기는 미경제의 성장과 특히, 고용시장의 개선에 따라 좌우될 것이라고 예상됨

□ 해외 경제 동향

1) 북한의 준전시 위협 사태에 대한 미국 반응

○ 월가 반응

- 전쟁 발발 가능성 희박하며 심각하게 보고 있지 않으며, 전쟁이 발발해도 국지적, 우발적 상황에 그칠 것으로 전망

○ 미 정가의 움직임

- 미국 정부는 국민과 언론도 북한의 rhetoric 협박에 ‘약간의 동요 움직임’ 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
- 또한 국지전 도발 등 북한의 오판 가능성에 대해 미정부도 약간의 신경을 쓰고 있는 상황
- 따라서 여론 안정화 등의 차원에서 미정부와 의회가 보다 강한 재제와 군사적 대응 행동을 보이고 있음 (B2 폭격기, 미사일 시스템 콕으로 이전 등)
- 이 같은 사태 해결을 위한 미-북한 간의 직접 대화 가능성은 당분간 없을 것으로 보임

○ 대북 강경책을 취하는 미정부의 근본적인 2가지 목표

- (1) 여론 불안 심리 잠재우기뿐만 아니라 미국내 국방비 삭감 여론을 막기 위한 명분 쌓기
 - 현재 이라크전, 아프카니스탄전 등 미국이 개입한 전쟁이 없는 상태
 - 이에 따라 국방비 삭감이 포함된 시케스타(자동 연방 지출 삭감) 조치에 대한 대응 조치
 - 즉, 북한에 대한 강경 대응은 국방비 삭감 방어를 위한 미정부의 명분 쌓기
- (2) 점증하는 한국내 핵무기 보유 필요성을 거부하는 대가로 ‘대북 강경 조치’ 를 통해 한국 방위 약속 메시지를 한국에 보내고 있음
 - 정몽준 의원 등 한국의 정계 일부에서 전두환 정부때 체결된 한·미 원자력 협정 개정 움직임
 - 원자력 협정에는 미국이 원자력 발전 기술 지원 대신에 한국의 핵개발 포기를 담고 있음

- 한국은 원자력 발전의 부산물인 플라토늄 양이 세계 3위 또는 4위로 이를 우라늄으로 전환하는 기술 부재, 현재 한국내 우라늄 생성 기술 필요성 움직임이 점차 일고 있는 상황
- 미국은 이 같은 ‘핵무기보유 필요성’ 한국내 여론 무마 차원에서 대북 강경 군사 조치를 통해 “한국 국방 지켜주겠다”는 메시지를 한국에 보내고 있음

○ 향후 미국의 정책 방향

- 최근 NYT, FT 등 주요 언론을 통해 미·북한 직접 대화 필요하다는 국제 여론이 점차 일고 있는 상황
- 일촉즉발 위기 상황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기존의 6자 회담 체제로는 해결되기 힘들다는 여론 확산으로 미·북한 직접 대화 필요성 여론이 점차 커질 것으로 전망됨
- 반면, 미정부가 당장 직접 대화 접근 방식은 취하지 않을 것으로 분석됨

2) 호주, 위안화-호주달러의 직거래 승인

- 지난 4월8일(현지시간) 파이낸셜타임스(FT)은 줄리언 길라드 호주 총리는 이날 중국 상하이를 방문한 자리에서 오는 10일부터 위안과 호주달러가 직거래될 것이라고 발표했다고 보도
- 이로써 호주달러는 미국 달러와 일본 엔화에 이어 위안화와 직거래할 수 있는 세 번째 통화가 됨
- 호주의 호주뉴질랜드은행(ANZ)과 웨스트팩 은행은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으로부터 두 나라 통화의 직거래를 승인받음
- 길라드 총리는 위안화 직거래로 중국내 사업을 고려하는 자국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비롯해 호주에 큰 이익이 될 것이라고 발표
- 한편, 인민은행은 오는 4월10일(현지시간)부터 매일 오전 9시15분 위안화와 호주달러의 기준 환율을 발표하게 됨

3) 라가르드 IMF 총재, 일본은행 양적완화 옹호 발언

- 지난 4월7일(현지시간) 마켓워치는 IMF 라가르드 총재가 이날 중국 하이난성 보아오에서 개막한 보아오포럼(BFA)에서 일본은행(BOJ)의 양적완화 정책을 환영한다고 발언했다고 보도
 - 라가르드 총재는 비전통적인 조치를 포함한 통화정책이 선진국 경제에 이어 차례로 세계 경제를 떠받치는 데 도움이 됐다며, 이런 측면에서 BOJ가 이제 막 발표한 개혁조치를 환영한다고 발언
- 앞서 구로다 하루히코 BOJ 총재는 지난주 장기간 마이너스(-) 영역에 머물러 있는 물가상승률을 2년 안에 2%로 끌어올리겠다고, 국채 매입 규모를 대거 늘리는 부양조치를 내놓은바 있음
 - 이번 BOJ의 새 조치는 연간 50조엔로 추산됨

□ 산업·시장 동향

1) 글로벌 천연가스시장, 경쟁 가속화

- 지난 4월7일(현지시간) NBC 뉴스는 세계 천연가스 소비량의 1/5을 생산하고 있는 미국이 호주 등 뒤늦게 천연가스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국가들로 인해 경쟁에 휩싸이게 됐다고 보도
 - 미중앙정보국(CIA)의 월드팩트북(국가정보보고서)에 따르면 미국은 여전히 천연가스 최대 생산국으로 기록됨
 - 하지만 러시아 등 기존 천연가스 생산국들의 생산량이 증가, 또한 호주 등 여러 국가들이 본격적인 개발에 나서 천연가스 수출 경쟁이 심화됐다고 설명
- 한편 전문가들은 최근 천연가스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 세계 여러 국가들이 천연가스 부지를 개발하는 등 천연가스 시장 판도 변화는 매우 급격하고 경쟁적이라고 분석
- 하지만 미국의 천연가스 개발 기준이 유럽보다 관대하기 때문에 당분간 미국이 천연가스 최대 생산국 지위를 누릴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

2) 전자화폐 비트코인, 가치 확산으로 사이버 금융거품 우려

- 지난 4월6일(현지시간) 워싱턴포스트(WP)는 해커들과 암호해독가 사이에서 거래되던 비트코인¹⁾이 일반적으로 확산되고 가치가 급등하면서 사이버 금융거품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고 보도
 - 전자지갑을 통해 관리하는 비트코인은 해커 등의 바이러스 공격에 취약하고,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는 예금과 달리 만약의 사태에는 돈을 다 날릴 수도 있는 희생이 따르지만 익명성과 제로에 가까운 거래비용 등을 무기로 최근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상황
 - 비트코인은 불과 2년 전 1비트코인 가치가 1달러에도 못 미쳤지만, 지난 4월3일(현지시간) 147달러까지 치솟으며 사상 최고를 기록한바 있음
- 현재 약 1100만 비트코인이 거래되고 있고, 그 가치는 14억 달러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
 - 키프로스 구제금융 지원 과정에서 예금주들이 크게 손해를 보면서 러시아와 스페인, 이탈리아, 포르투갈, 아일랜드 등 구제금융 지원 또는 가능성이 높은 국가에서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
- 무엇보다 비트코인은 애초에 금처럼 공급에 제약이 따르도록 만들어져 있고,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올라가게 돼 있기 때문에 일부 벤처캐피털도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서는 등 과열 양상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
 - 비트코인 공급은 금광에서 금을 캐듯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면 비트코인을 보상으로 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고, 시간이 갈수록 문제가 어려워지고 그만큼 받을 수 있는 비트코인 수도 적어 짐
 - 또한 애초부터 최대 물량을 정해냈고, 발행물량이 2140년 2100만 비트코인에 이르면 더 이상 나오지 않게 설계되어 있음
- 한편 일부 전문가는 아무런 실체도 없는 비트코인은 거품 그 자체라는 평가
 - 일부에서는 비트코인의 수십억 달러 가치 뒤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경고

1) 비트코인은 금융위기 직후인 지난 2008년 갑자기 사이버 공간에 나타난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가명의 해커(또는 해커그룹)가 2009년 1월 공개하면서 시작된 사이버머니 체계